

# KOSOVO

이성민, 장혜경(은지, 새일)선교사 선교소식



“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15:19

코소보의 국기에 있는 6개의 별들이 상징하듯 이곳에는 여러 소수 민족이 살고 있다. 대다수가 알바니아계이고, 그 다음이 세르비아계, '롬', '아쉬칼리'와 같은 종족들이다. 이 중 '롬'과 '아쉬칼리'는 소위 말하는 집시족인데, 피부 색이 백인과 달리 약간 검은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백인 계열 사람들이 집시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백인 계열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꺼려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래서 집시들을 대상으로만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기도 하다. 우리가 동역을 하는 블랜디 선교사는 알바니아에서 온 집시 사역자이고, 이곳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신자들은 코랍과 같이 피부가 다른 신자가 있지만, 서로 섬기면서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과 어울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감사하기만 하다.

.....

## 사랑하는 동역자님

그동안 건강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셨길 바라면서 이번 소식을 전합니다.

## 코소보의 팬데믹 상황

지난 번 소식을 드릴 때만해도 매일 수백명의 감염자가 나왔는데, 어제는 10명의 감염자, 0명의 사망자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체 인구가 180만 정도인데, 10만명 정도만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하고, 방역 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도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할 때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팬데믹 기간 영적으로 나태해진 신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다시 주님을 찾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코소보를 위한 기도 제목

코소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코소보가 유럽 여행 비자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코소보와 세르비아와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르비아와 우호적인 다른 유럽 국가들이 코소보의 비자 면제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일 전에 코소보 총리와 세르비아 총리가 만났지만 정상화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하루속히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나라로 인정하고, 서로의 관계가 정상화됨으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침 모임 재시작과 새로운 열매**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아침 모임을 다시 시작하면서 신자들 중에 몇 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눈 후에 함께 산책을 나가 커피를 마시면서 아침 시간을 보냅니다. 감사한 것은 '에그존'이라는 불신자 청년이 아침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그존'은 그 동안 아침 모임에서 잠언을 같이 읽었고, 복음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모임 후에 함께 산책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모든 모임에 자주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아직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모임에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장선교사의 즐거운 일

아들을 태권도장에 보내면서 장선교사와 교제하게 된 '레오니따'라는 젊은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태권도 도장에서 만날 때마다 장선교사는 전도용 묵상지(파라에밀-좋은 씨앗)를 한장씩 주곤 했습니다. 회교신앙이 강한 분이기에 그 반응이 기대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레오니따'가 묵상지의 출처를 묻고는 그 책이 일년치 한권으로 된 달력인 것을 알고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한 권 줄까 했더니 거부했고 만날때 마다 한장씩 달라고 하더랍니다. 사실 받지 않겠다고 말할것이라 예상했는데 한장씩만 달라해서 아내는 많이 감사했습니다. 요즘 장선교사는 전도지 한장을 뜯어놓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레오니따'가 말씀 쪽지를 계속 읽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읽는 중에 믿음을 가지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은지 소식

은지는 3개월의 시간을 독일에서 잘 보내고 지난 6월 12일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쉬운 것은 장기 비자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민국으로 부터 9월 성경학교 시작에 맞추어 비자를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서 출국하는 것이어서 그나마 안심입니다. 낯선 나라에서 처음 해보는 비자 업무를 위해 마음 고생을 했을 은지가 대견스러울 뿐입니다. 그간 거주했던 좋은 현지인 가족 덕분에 독일어에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니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은지가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성경 학교에 입학하고, 장기 비자를 받는 일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  
 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서 헛되지 않  
 줄 앎이라

1 CORINTHIANS 15:58

## 연락처

이메일:

smleekosova@yahoo.com  
 semilee1016@gmail.com

전화 번호

070-8246-1434

010-7431-1434(한국)

0038344334420(코소보)

GMP: 02-337-7191

카톡:samlee1016

선교 소식:

<https://post.naver.com/smleekosova>



## 한국 방문 계획

저희 가정이 7월 3일 부터 8월 16일 까지 한국방문을 계획하였습니다. 매년 제가 갑상선 암 정기 검진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이번에는 장선교사의 건강검진도 필요하다 생각되어 가족 모두가 짧지만 병원 방문 목적으로 한국을 가게되었습니다. 한달 반의 짧은 기간이지만 원하기는 귀한 동역자님들을 만나 교제하고 싶습니다. 가족의 건강 검진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오고 저희에게 문제되는 곳들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아 건강하게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은 무더위가 심하다고 하지만, 이곳은 이상 기온으로 선선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심으로 한국에서 뵈 수 있으면 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2021년 6월

코소보에서

이성민, 장혜경, 은지 새일 올림

## 기도제목

1. 감사하게도 저희가 없는 동안 이곳의 현지인 사역자들과 동료 선교사님들이 저희 대신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했는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교회 신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 가정들이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 메투쉬: 손녀인 '요라'의 백혈병
- 아프림: 백내장 수술 후 후유증
- 쉬켈젠: 손자 '엘로이' 희귀병
- 플라므리: 손자 '요니'의 불치병
- 코랍: 어머니 손 수술 후 회복

3. 새일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일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만난 친구들인데, 사춘기가 되면서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분별력 있게 판단하여 새일이를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음에도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겔띠', '파토스', '벨키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5.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태권도장에서 만나는 '에트닉', '밀롯', '케이디', '레오니따', 한글을 배우는 '제니사', '움마', '베사', '하디스', '레카', 아침 식사를 대접을 통해 만나는 '하이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6. 한국 방문 기간(7월 3일-8월 16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